# 300만원 상품권 불티나네

## 설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 고가 선물세트 인기

### 굴비·한우 등 명품류도…추석보다 물량 늘려

설을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에서 고액 상품권 세트와 고가 선물세트가 잘 팔리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00만·1천만원 상품권 세트인 '프레스티지 패키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특히 300만원 상품권 세트의 경우 준비한 150개가 지난 주말까지 모두 팔려 추가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상품권 세트는 10만원권, 30만원, 50만원권을 골라 살 수 있는 묶음 상품으로 기업들이 주고객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기업 구매량이 늘고 고액 상품권 세트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 7일까지의 상품권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1%나 늘었다. 지난해 상품권 세트 매출은 명절 연휴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올해 상품권 세트 매출은 사실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세트와 함께 고가 선물세트도 인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지난해 3세트 밖에 판매되지 못했던 200만원짜리 '황제 굴비'가 8세트나 팔렸다. 100만 원짜리 '황토염 굴비 특선'도 12세트가 팔렸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33㎝ 이상 굴비를 10미 이상 묶어 선보인 '프리미엄 참굴비'(200만원)가 2세트 팔렸으며 100만원짜리 '명품 목장 한우 특호'도 1세트가 판매됐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고가 선물세트가 잘 팔릴 것으로 보고 명품 선물세트인 '신세계 5 스타'를 지난 설보다 80%가량, 추석보다는 48%가량 물량을 늘려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설이 빨랐던 지난해에는 연말·연초 선물 시즌과 겹쳐 개별 상품권 매출이 많았지만 올해는 고가 상품권 세트가 잘 팔리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기대감 속에 고가 선물세트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차례용품 싸게 구입…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 광주전남 중기청 캠페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충식)은 10일 설을 맞아 광주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참여해 전통시장 쇼핑용 장바구니를 무료 배포하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전국 36개 전통시장 및 동일상권에 포함된 대형마트의 설 차례용품 22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 20.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 농협 광주지역본부 보험사업 전국 1위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농협중앙회의 '2009년 보험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0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지역본부는 전국 시 단위 지역본부 8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총보험료 목표액의 38%를 초과 달성, 이같은 성과를 냈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02년 이 부문 1위를 달성한 뒤 이번까지 8년 동안 수위에 올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8월 전국 본부 가운데 가장 먼저 총 보험료 목표액을 달성한 데 이어 신상품 특별판매 실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정종순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농민과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인 책무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구수회 롯데백 광주점장

## 그룹 이사로 승진

구수회(53)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이 롯데그룹 이사로 승진했다.

구 점장은 지난 2004년 유통업계 최초로 '환경가치경영'을 내세우며 '에코 경영'을 실천해왔다. 또 지역사랑 프로젝트 일환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지역대학 인재육성 기금 마일리지 캠페인, 무등산 정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밀착 경영을 펼쳐왔다.

경기도 출신인 구 점장은 전주 신흥고, 전주대를 졸업했으며, 87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인천점장, 전주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신보 금융소외계층 돕기

## 400억원 추가 보증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0일 "무점포, 무등록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400억원을 추가 보증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무점포 상인, 노점상, 신용등급 6급 이하인 저신용자 등이다. 지원액은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700만원 이내,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7.3% 이내, 상환 방식은 5년 분할·일시상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모두 6천300명을 대상으로 42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사업을 펼쳤다.

문의 062-950-009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 사업평가 6년연속 전국 1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남헌일) 기술이전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실적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10일 "광주기술이전센터가 최근 전국 14개 지역 기술이전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2단계 사업·기술이전·기술 사업화 실적 평가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소 이래 이번까지 모두 6년 연속 이 부문 수위를 지켰다. 이는 지난해 기술이전 45건, 기술사업화 지원 95건, 기술 금융 연계지원 386억원 등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0년도 사업선정 평가결과 광주·전남테크노파크는 공동추진 과제인 '기술 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작년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17만8천명

### 전년비 8.6% 증가… 1인당 4,564주 소유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주식 투자자와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시장 중 12월 결산사를 기준으로 주식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주식투자자는 총 17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도 4천564주로 1년 새 14.2%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개인주주가 8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8천428명(32.7%·2억6천986만주)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 미만인 3천413명(1.9%)도 6천150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1만1천317명(62.4%)에 5억6천163만 주(73.7%), 여성은 6만7천49명(37.6%)에 2억72만 주(26.3%)를 차지했다.

실질주주의 소유 주식 수는 광주 서구가 1억2천4만 주(13.9%)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북구 1억1천957만 주(13.9%), 광산구 9천268만 주(10.7%), 여수 7천385만 주(8.5%), 목포 6천729만 주(7.8%) 등이 뒤를 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